

두피에 흡수가 잘되는 미세구조 침투케어어

영문상주 모이던

毛ReTurn

080-850-9733

## Weekend

경산 친환경  
봄 미나리  
맛보러 오세요  
▶ 6면



경북도,  
산사·서원·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3면



# 보수 우파 뚝뚝 뭉친 탄핵 기각 태극기 물결 온누리

### 친박 윤상현 "보수우파 결집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함 풀자" 보수원법조인 탄핵 기각 촉구 남유진 구미시장 탄핵반대 참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한 보수 세력과 친박들의 역공이 질풍노도처럼 밀려 오고 있다.

보수 우파 결집으로 박대통령 억울함을 풀자는 탄핵 기각 총 반격이다.

친박·보수법조인들이 총 출동 태극기를 손에 들고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보수법조인들은 "박대통령 위헌 안했다"고 주장했다.

#### ■보수 법조인들 탄핵 기각 촉구

실제 9일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지 1면에는 보수원론 법조인 9명의 탄핵 기각 촉구 의견광고가 실렸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 4명(김두현, 김평우, 이세중, 함정호), 현재 재판관 출신 2명(이시윤, 김문희), 대법관 출신 정기승, 원로변호사 김종표, 이종순 등은 광고를 통해 국회의 탄핵 가결을 "중대한 위헌"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박한철 전 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을 주장하면서 "현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3월 13일 탄핵 결정은 물 건너간다.

보수지들에는 이밖에 한국교회연론회 명의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위하다'는 광고와, 오는 11일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대거 참석을 호소하는 '탄기국' 명의의 광고 등도 대거 실렸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200여 명의 친박 의원들과 극우인사들이 집결, 태극기집회 지지 토론회를 열었다.

#### ■남유진 구미시장 탄핵 반대 참석

남유진 구미시장이 11일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전국기초단체장이 탄핵반대 집회 참석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시장은 이날 오전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터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결기 운동본부'(탄기국) 경북본부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다.

남 시장은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남 시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반대하는 등 줄곧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대한민국 여러 자치단체장 중에서도 구미 시장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 탄핵에 당연히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딸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조금이나마 돕자는 생각에서 집회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억울함 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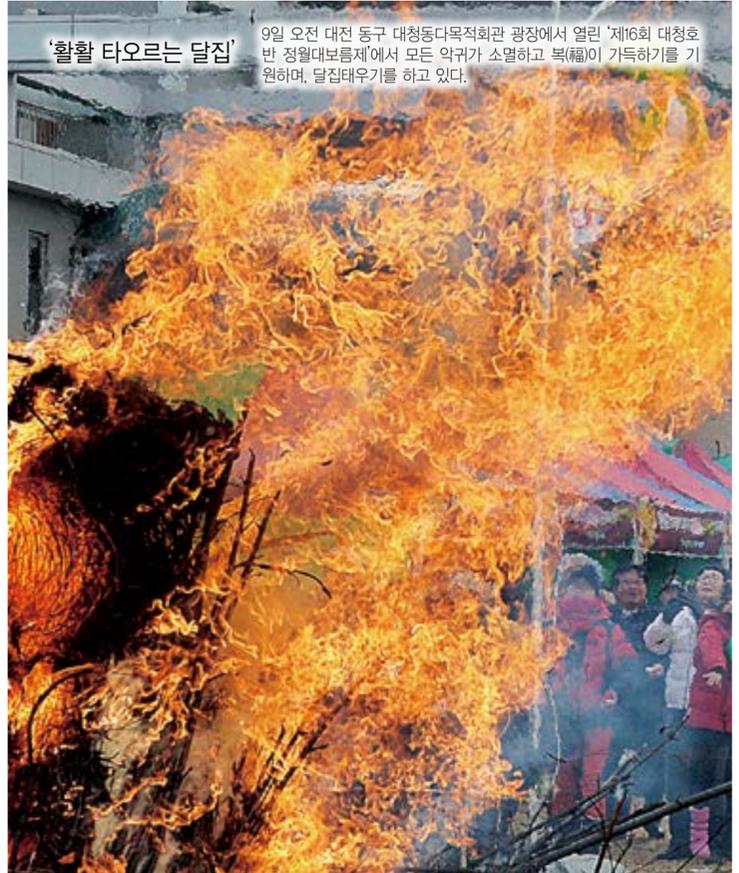
친박 핵심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보수우파가 결집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고 대한민국 새 역사를 쓰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현안 토론회 '태극기 민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열고 "태극기 집회는 정말 가슴 벅찬 자랑스러운 것이지 산업화 기적을 이끌어낸 자유민주세력의 총정어린 민심의 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이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된 지 딱 2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탄핵안 처리를 막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두고 자책감, 무력감에 참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처리된 탄핵은 정말 졸속탄핵이었다"며,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에 연루돼 탄핵안이 처리될 때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의 탄핵은 검찰 기소장, 언론의 의혹 보도로 무리하게 처리됐다. 탄핵 사유도 처리 전 날 공개되고 토론도 없었다"며,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미 새 역사는 시작했다. 새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통합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견마지로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활활 타오르는 달집'

9일 오전 대전 동구 대청동다목적회관 광장에서 열린 '제6회 대청호 반 정월대보름제'에서 모든 악귀가 소멸하고 복(福)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달집태우기를 하고 있다.

## 경주 낭산 고분지서 통일신라시대 가릉 발견

〈假陵〉

### 진경덕왕릉(765년)과 비슷한 규모 신라왕경 연구 매우 중요한 자료



경주의 고분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가릉이 발견돼 학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재)성립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사적 163호인 경주시 구황동 낭산 일대에서 폐왕릉지로 추정되는 고분지 유적을 발굴했다.

국보 79호인 금제 여래좌상과 국보 80호인 금제 여래입상이 발견된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 37호)에서 남쪽으로 약 135m 떨어진 논에서 발견된 유적은 성덕왕의 둘째아들이며, 경덕왕의 형인 효성왕(孝成王, 742薨)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이 유적이 신문왕릉, 성덕왕비인 소덕왕후, 효성왕비인 혜명부인, 민애왕릉

등의 폐왕릉지로 비정(比定)되거나 의상의 탑돌이와 관련된 황복사의 목탑지로 추정하고 있다.

발굴에 나선 성립문화재연구원은 신라 왕경 조영에 사용된 탱석, 면석, 지대석, 갑석과 미완성 석재 등 다량의 석재를 확인했다.

석재 주변으로 8-9세기 중심연대인 건물지와 담장, 도로 등을 확인, 연화보상화문수막새, 구면와, 습부정점, 명문기와 등 300여 점의 유물도 발굴했다.

이번에 발견된 갑석과 지대석, 면석 등으로 추정된 왕릉의 직경은 약 22m로 진경덕왕릉(765년)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립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통일신라시대의 왕릉 축조 과정과 능원제도, 신라왕경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천 기자

## 이재만, 유승민 '배신'의 아이콘이라 지지율 낮아

### 이재만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임명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바른정당 유승민의 의원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9일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조직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이재만 동구를 조직위원장은 9일 유 의원의 낮은 지지율과 관련, "유승민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이고 지역에서도 배신의 아이콘으로 다 알려져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직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직후 유 의원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조직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유 의원을 구제하려는 김무성 전 대표의 '육새과동'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그는 "유 의원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 지역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고 또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감도 너무 없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쓰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본인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국민들이나 지역 유권자들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남달한데 피해만 입히고 분란만 만들어내고, 그런 의미로 지역에서 남아 있다"고 유 의원을 몰아세웠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30명에게 조사한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은 4.5% 지지율에 그쳤다.

이상하 기자

체험과 관광, 휴식과 여유가 있는 곳.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

정경 문화의 맑은 자연 속에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수려한 산새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맛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봉화로 오세요!

www.bonghwa.go.kr

봉화군

# 국제청소년연합 '2017 굿뉴스코페스티벌' 대구서 개최



대구·경북지역 출신 대학생 약 400여 명이 1년간 파견국가서 얻은 경험 공연으로 선보인다

국제청소년연합이 오는 24일 대구 엑스코 일원에서 대학생 해외봉사단 콘서트 '2017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굿뉴스코는 '활동을 해주러 갔다가 오

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출신 대학생 약 400여 명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파견국가에서 지내며, 얻은 경험 등을 공연으로 담아 선보인다.

대구 공연은 오후 3시 30분, 7시 30분 2회로 나눠 펼쳐진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국내 11개 도시와 일본 후쿠오카와 히로시마에서도 순회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국제청소년연합은 국외 80개국, 국내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전 세계 87개국에 총 5723명의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봉사활동 자격은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리더 육성을 목표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워크숍, 교육이수과정 등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파견 가능하다.

현지에서는 교육(컴퓨터·피아노·댄스 등), 사회봉사, 문화의교, 민간외교, 언론홍보, 문화관습 체험, 선교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연합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1년간 해외봉사 단원의 이름으로 422명의 젊은이가 세계 각국으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며,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체험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공연에 관한 기타문은 국제청소년연합 대구경북지부(053-525-6130)로 하면 된다. 김진희 기자

## 한국농업경영인 대구시연합회 류태환 회장 취임



(사)한국농업경영인 대구광역시 연합회는 지난 8일 대구 컨벤션호텔에서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및 농업경영인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태환 신임회장 취임식

을 개최했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류태환(51세·동구, 미나리재배) 회장은 지난 4년간 대구농업발전회 이바지 하신 정성중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신임 이상복 수석부회장, 우재호 정책부회장, 방중화 사업부회장과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는 물론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권익향상과 농정개혁운동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57세·구미)을 초청 '창조경제시대 미래를 여는 우리농업!' 특강을 통해, 농업경영인들에게 대구농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하 기자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청춘캠퍼스 개강

390명으로 1년간 운영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8일 오전 류한국 서구청장을 비롯한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대학 청춘캠퍼스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개강식과 2부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개강식에 이어 2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노인대학 청춘캠퍼스 연간 운영 방향, 동아리 활동 및 일정 등을 소개했다.

올해 노인대학은 390명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가요교실, 민요교실, 차명댄스, 실버댄스의 정규과목과 탁구, 프리테니스, 실버요가, 생활영어, 장구, 건강체조 동아리반, 특강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류한국 서구청장은 "백세 인생, 노인대학 청춘캠퍼스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광덕 기자

## 수성구, '똑똑건강학교' 만들기 협약 체결

수성구 보건소, 초등학교 대상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수성구보건소가 3개 초등학교(지산초, 파동초, 범물초)를 '2017년 똑똑 건강학교'로 선정

하고, 8일 오전 학생 건강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학생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학 협력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체결한 3개교에는 수성구보건소에서 영양교육, 구강교육, 금연교육, 신체활동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등 학생들의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건강체중관리 프로그램 중 올해 처음 진행되는 음악줄넘기는 비만개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류재현 기자

## 조류독감 한파를 나눔의 온기로 채우다

동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닭동집골목 활성화 캠페인 닭동집 시식행사 열어

동구에서는 지난 8일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명물먹거리인 평화시장 닭동집 골목에서 동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닭동집골목 활성화 캠페인과 시식행사를 개최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 후, 각 자원봉사단체별 월례회의와 시식행사 실시해, 식당에 몰아친 한파를 나눔의 온기(溫氣)로 채웠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명희 회장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기쁜 일은 함께 만들고, 어려움은 함께 나눌 것이며, 행복함은 함께 누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한 강

대식 동구정장은 "어려운들을 통해 고단한 현실을 희망의 울림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우리 동구가 이러한 나눔과 배려 덕분에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가금

류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방역관리를 거치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며, 75℃에서 5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익히면 아무런 해가 없으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평화시장 닭동집골목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오늘 캠페인과 시식행사는 가금 속 단비역할을 톡톡히 했다. 남주형 기자



달성 구지면 창리 1지구·목단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달성군은 오는 16일 구지면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구지면 창리 1지구·목단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는 '구지면 창리 1지구·목단 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배경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등에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알리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013년 '논공읍 복리 1지구'와 2015년 '가장면 우록 1지구' 사업을 시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사업추진에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받아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추진량을 실시해 2018년 7월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 대구시정혁신 이끌어낼 창의 아이디어 발굴한다

대구시, 시민·공무원 대상 정책아이디어 공개 모집

대구시가 시정혁신을 이끌어낼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공무원 대상 정책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모주제는 △불합리한 관행·규제 개선 아이디어 △행정서비스 향상·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등 2개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응모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구시 민원제안통합시스템인 '두드리소'와 우편·팩스·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거리투표와 정책제안콘텐츠 평가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출된 제안 중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장상과 함께 최고 300만 원에 해당하는 부상금을 지급하고 결과는 5월 중 대구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제안포터즈'를 활용해 젊은층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유도하고 '시민제안평가단'의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라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군과 각 대학교, 교육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전광판·현수막·포스터 등을 활용한 대대적 홍보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전제정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진정한 시정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녹아들어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 전화 한통이면 OK!

# 120

# 달구벌콜센터

**01 120달구벌콜센터 연중무휴 /**  
평일 08: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02 상담분야**  
이민, 국민연금, 고용, 상주도, 문화관광, 노인복지, 환경, 시민일반

**03 이용방법**  
전화, 문자, 상주(공인인증) /  
대안상담(홈페이지 예약시에는 시간외 상담)  
온라인 상담(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외국어 상담(영어, 중국어, 일본어)

**04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상담사와 인원이 늘려 상담, 민원도민들의 갈수록더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 →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사, 민원서류) → 두드리소 (민원번호, 민원사유관리, 사무관리) → 부서 (민원처리 및 답변)

민원 제안여기다

## 두드리소

온라인 민원 제안 대표창구 두드리소 검색 인터넷, 모바일로 언제나 -  
<http://dudriso.daegu.go.kr>  
<http://smart.daegu.go.kr>

두드리소란? 대구시의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 경북도, 영·호남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 공동성명서 발표

###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 지역현안문제 집중 논의

경북도는 9일 오후 엠블호텔 여수(그랜드볼룸 II 홀)에서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김관용 경북지사와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표 논의했으며, '2017년 호프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등 영·호남 주요행사 14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도권 출몰 방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과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영·호남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화 정책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된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에 답이 있다'고 뜻을 같이 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후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상수도 원수요금 체계 △영·호남 광역철도·도로 건설 등 9가지이며, 지역균형발전과제와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관용 지사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복구 현장을 방문해 화재로 생업에 어



여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늘 협력회의는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에 뜻을 모으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타 지역과도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 지역대학과 청년일자리 늘리기 묘안 찾는다

### 21개 지역대학 취업담당자와 간담회 대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어 올해에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청년일자리 늘리기'로 정하고 예산 확대 편성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 재·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경북도가 밝힌 올해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역점시책 내용에는, 대학 내 청년고용정보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대학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19억 원)해 저학년부터 학과별 특성화된 진로지도 강화와 기존 4학년제에 치중된 취업서비스를 입학생·졸업생·재·졸업생, 타 대학생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 추가로 올해 2개 대학센터를 더 육성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학에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고 전임 강사로 및 교재비를 지원(3억 원)해 전문대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청년들의 글로벌 리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항공료·보험료·현지 정착비 및 취업비자 발급 컨설팅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4억 원)을 돕는다.

무역계약, 비즈니스 영어, 해외마케팅 등 FTA 무역환경에 대응한 청년무역전문인력(70명)을 양성(4억 원)해 글로벌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키우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기업과 구인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대학연합 취업캠프를 열어 취업특강, 모의면접, 중소기업 탐방 등을 지원(1억 원) 한다.

이 밖에 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주는 청년창업지원, 중소기업 고졸취업근로자 학사학위 취득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용 기자

## 산사·서원·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이코모스의 현지실사 시작 도내 3건 문화유산에 대해 연이은 등재 추진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제왕의례와 강학 및 사회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임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2018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다.

이에 등재 추진기구인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과 관련 14개 지자체는 오는 2018년 신청서 제출과 2019년 7월 등재를 목표로 보편적 가치(OUV)를 도출하고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가야고분군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미산 고분군 등 3개 고분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분군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여러 국가들이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소멸된 가야문명의 존재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준다.

이는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역사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류사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됐으며 2015년 3월에는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도와 경남도 등 관련 5개 지자체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이달 중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추진단이 발족될 예정이다.

경북도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고당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등재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세계유산 전국 최대 보유 광역지자체로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전성기 기자

##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 구제역 방역현장 점검

### 도 경계지역인 상주 화남 통제초소 방문 관계자 격려·차단방역 철저 당부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9일 오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과 접경을 두고 있는 상주 화남 구제역 통제초소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AI에 이어 구제역이 충북 보은, 전북 정읍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통제시설을 점검해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재봉 본부장은 김정일 상주부시장, 상주소방서장, 화

남면 의용소방대장과 함께 시 관계자로부터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제초소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 장소인 상주 화남 통제초소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의 농가와 6Km정도 거리에 위치한 도 경계 지역으로 경북도에서는 차단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 중의 하나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 52개 통제초소에 소방차를 이용 1200톤의 방역용수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ANDONG NONGHYUP FARMER'S MARKET

안동농협파머스마켓의  
품격있고 편안한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안동농협파머스마켓을 만나 새로워진 일상 -  
다채롭고 풍성한 먹거리와 놀라운 품질, 가치있는 가격의 생활필수품 등  
일찍한 쇼핑찬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간간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식탁위의 감각을 더해주는 안심먹거리!  
믿을 수 있고 스페셜한 이벤트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뛰어난 알뜰 쇼핑!

안동농협파머스마켓  
경북 안동시 서비원로 141(남북동 30-9)  
TEL: 054) 853-6691, 7088~9  
FAX: 054) 856-4545

# 대구지검, '비리의혹' 시립희망원 前 원장 등 23명 기소

배 신부 등 7명 구속 기소  
희망원 회계담당자 B 씨  
등 16명 불구속 기소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원장인 배 모 신부(63) 등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9일 인권침해, 비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여 배 신부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희망원 회계담당자 B씨(56·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진호 강력부장)은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환자 간병을 맡게 해 업무상과실로 사망한 사례 3

건과 생활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 상해 사건 12건, 지적장애 생활인들에 대한 금품 편취 6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주형 2차장검사는 "내부규칙 위반 생활인에 대한 징계 명목으로 독방시설을 운영하면서 7년 동안 302명을 1인 평균 11일씩 감금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생활인 끼리의 폭행 등으로 2명이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배 신부 등이 담당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6억여 원을 허위로 지급받아 부당하게 수령하고, 생계급여에서 지출되는 급식비 중 5억8000만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기초수급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도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달성군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대구희망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생활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위탁기관인 대구시에 통보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조여은 기자

## 검찰 "시립희망원 비리, 대구대교구와 연관성 없어"

"수억 원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 확인했으나 대구대교구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 없다"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9일 "수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구대교구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노숙인과 중증장애인 등 1000여 명을 돌보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 4월부터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희망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희망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가보조금 허위청구와 급식비 횡령 등으로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희망원 전 원장 배 모 신부(63)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격 조건이 맞지 않은 생활인 177명을 매년 기초생활수

급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5억8000만 원은 개인이 횡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대구대교구로 흘러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배 신부가 횡령한 자금 중 1억7500만 원이 사목공제회에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됐으며, 이 중 55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왔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은 배 신부 명의로 예약돼 있었다"고 했다.

사목공제회는 천주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공제기구다.

이 차장검사는 "오래 전부터 운영돼온 공제회에 배 신부 명의로 예약된 돈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목공제회와 대구대교구와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인권침해, 비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배 신부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희망원 회계담당자 B 씨(56·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여은 기자

## 대구은행, 강도 잡은 포항북부경찰서장에 감사패

이성호 포항북부경찰서장, 대구은행 모 지점서 업무 보던 중, 옆 창구서 모형 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괴한을 제압



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9일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지난달 발생한 강도사건을 제압한 이성호 포항북부경찰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성호 서장은 지난달 설을 앞두고 찾은 DGB대구은행 모 지점에서 업무를 보던 중, 옆 창구에서 모형 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괴한을 제압했다.

위험을 느낀 DGB대구은행 해당 창구직원은 비상벨을 누르고 "CCTV가 있다"며 침착히 응대하는 한편, 마침 지점을 찾은 현직 경찰서장의 도움을 받아 소란없이 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다.

박인규 은행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준 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찰과 공조한 빈틈없는 보안으로 고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윤환 기자

## 울릉군의회 전·현직 의원들 여객선사 본부장 '독점'

군민보다 선사의 이익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관 업무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울릉군의회 전·현직 군의원들이 여객선사 본부장(소장)을 독점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군의원들이 특정선사에 소속되면서 군민보다 선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관 업무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포항과 울릉, 동해와 울릉, 강릉과 울릉을 오가는 선사인 대저해운과 태성해운, 씨스포빌 본부장(소장) 3명은 모두 울릉군의회 전·현직 시의원이 맡고 있다.

3선인 정인식(울릉읍) 군의원은 지난 1월 말 포항-울릉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태성해운 본부장을 맡고 있다.

4선인 이철우(북면) 군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뽑아냈더니 결국 사익을 위해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하고 있는 꼴"이라며, "무엇보다 전문성도 없는 군의원들이 돌려가며 자리를 독점하는 폐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료 B 군의원은 "동료로서 부끄럽다"며, "군정을 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한 기자

## 경산 주택서 火...창고 등 태워 1100만 원 피해

9일 오전 2시 38분쯤 경산시 하양읍의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49.5㎡)과 조립식 창고(5㎡)를 태워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피해

가 났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인력 24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경호 기자

## 대구 서구 비산동 이불창고서 火...13분 만에 진화, 1명 부상

9일 오전 9시 3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이불창고에서 불이 나 13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3층 건물의 1층 이불창고 내부 등을

태우는 재산피해를 냈다. 또 창고주인 김모(54)씨가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머리를 다쳐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신고를 받은 서부소방서는 소방차 14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광익 기자

## 김종태, 20대 첫 의원직 상실... 부인 징역형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부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이 이 씨의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 배치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선거구

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법면 협의회장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수행하는 권 모 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 모 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 원과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며, "후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 씨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씨에게 건넨 905만 원 중 755만 원에 대한 혐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건넨 돈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김 의원은 19대 때 상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가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합쳐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당선됐다. 뉴스1



젓소야 주사 맞자!

9일 오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수정목장에서 포항시 공수의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경기 연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지시했다.

## 포항해경, 암컷·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한 2명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단속이 취약한 소형선착장을 이용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 판매하려던 갑포선적 자망어선 D호(3톤) 선장 김 모(55) 씨와 선원 김 모(63) 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 2명은 지난 8

일 오후 7시 50분께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척사 선착장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44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116마리를 선박에 숨기고 들어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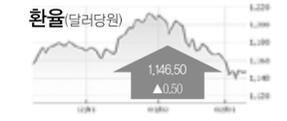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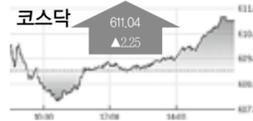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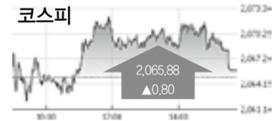
이들은 상대적으로 주변 감시가 소홀한 소형 선착장을 이용해 불법 포획 대게를 들여오다 잠복해 있던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획물을 현장 방류하고, 선장 김모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윤환 기자

## 상주 상산로 도로서 화물차 오토바이 추돌... 1명 숨져

8일 오후 6시 50분께 상주시 상산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문 모(53)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 대구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사업 선정

### 국비 10억 총 사업비 21억 규모 민간부문 보급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적정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사업비 21억 원 규모로 민간

부문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특정구역 복합사업으로 달성군 현풍·구지면 일원 테크노폴리스를 대상으로 주택·상가·산업체 등 36개소에 신재생에너지지원인 태양광발전설비와 지열설비 780kW 규모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공모로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와 사업 전담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비를 신청했다.

2018년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원 총용량 2MW 규모로 100여 개소에 총사업비 50억 원 정도로 사업을 확대해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며, 다음달부터 사업안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수송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사업은 생활밀착형 민간보급사업으로 에너지비용 절감과 더불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민간부문 보급 확대에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 한국가스공사, 주요설비 수명평가위원회



한국가스공사가 8일 장기운영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가스공사의 설비운영 전문 인력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LNG 생산기지의 설비들에 대한 수명진단결과 심의를 통해 설비의 지속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LNG 생산기지의 주요 설비인 LNG 기화기 및 천연가스압축기 등 3종에 대한 수명평가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LNG기화기는 및 천연가스압축기는 상태가 양호해 지속사용 하고, 전력용 콘덴서 총 92기중 41기는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가스공사는 30년 이상 축적된 설비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가스업계 최초로 LNG 생산기지 설비별 수명관리 기준을 마련해, 과학적인 수명진단과 함께 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유지·관리하는 수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 DGB금융그룹, 2016년도 연결순이익 2877억 원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은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87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이익인 이자이익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장을 통해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2021억 원을 기록했다. 비용 면에서 판매비는 철저한 관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6390억 원, 총당금입액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1959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3869억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2877억 원을 시현했다.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015년 DGB대구은행의 휴면예금관련 세급 환급 353억 원 영향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증가한 수치이다.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5%와 7.95%이며, BIS자기자본비율은 12.90%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룹 총자산은 비은행 자회사들의 성장이 본격화 되면서 62조14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주요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의 2016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3397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2% 증가한 2650억 원을 시현했다.

총자산은 8.1% 증가한 54조4974억 원이며, 총대출은 4.5% 증가한 32조9838억 원을 기록했다. 이상하 기자

## 농협 도농협동연수원 '정월대보름 와인동호회와 都農공감'



###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 다양한 도농공감 프로그램 실시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은 11일 문경의 6차산업현장인 오미나라(문경읍 새재로 609)에서 온라인 와인동호회 회원 40여 명 및 농업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맞이 와인동호회와 함께하는 도농공감'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문경새재 옛길 등 지역 문화 탐방 △아리랑차법 시연 △6차산업 현장 오미나라 와이너리 견학 △나만의 와인만들기 체험 △이종기 명인의 '전통주와 와인' 강연 △귀바이술 오미자와인 시음 △문화공연 순서로 진행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에서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 전파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을 위해 다양한 '도농공감'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온라인 와인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6차 산업현장에서 우리농산물인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와인으로 세시풍속의 하나인 귀바이술 시음과 더불어 문화공연,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목한 연수과정이다.

도농협동연수원 권갑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와인동호회 회원들이 오미자와인 와이너리를 찾아 와인만들기와 와인시음을 통해 6차산업의 의미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미나라 이종기 전통주 명인은 강연을 통

해 "우리농산물로 세계적인 와인을 만들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오미자 와인은 오미자가 지닌 다섯가지 오묘한 맛을 와인에 담아낸 명품으로 프랑스에서도 호평을 받아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동호회 회원에게도 좋은 체험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와인동호회의 최종령 씨는 "오미자로 만든 와인이 세계적인 와인과의 견줘 전혀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우수한 맛에 놀랐고 오늘 연수가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과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과 6차 산업의 미래를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귀바이술 시음도 하게 돼서 일년 내내 기분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했다. 이상하 기자

## 체계적인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 마련돼야

###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제기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주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 후원으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 의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 사회로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개선 방안'을, 양창영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 김용한 MI전략연구소 김용한 소장이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

응방안'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나섰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유통업 종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양창영 변호사는 "유통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은 확대일로"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 제시, 상권 영향평가 등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한 소장은 주로 소상공인업소와 온라인을 연결하는 O2O비즈니스 급성장을 설명하면서, "증폭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의식 및 마케팅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로 권순중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하 기자



### 롯데백 대구점, "부럼 깨고 건강한 한 해 되세요"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2층 식품관 리치팜 너트매장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럼 깨기 견과류 땅콩과 호두를 선보인다.

정월대보름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고 일년의 운세를 점쳐 보는 달이다. '부럼 깨기'는 정월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 해의 건강을 비는 뜻에서 생밤이

나 호두, 땅콩 등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 이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며, 오늘날에도 가장 잘 전해지고 있는 풍습 중 하나이다.

가격은 오는 12일까지 할인해 부럼땅콩 300g 7500원, 부럼호두 180g 7200원에 판매한다. 이상하 기자

청정자연 갈라파고스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대성그룹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성그룹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세계 에너지 빈곤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풍력 ODF / 나란 / 단다후 사업

에티오피아 사업

키리호스탄 사업

방글라데시 사업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선의 수익모델" 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배정입니다.

# 경주시 성실납세자 우대받는 인센티브 시책 추진



최양식 경주시장은 10일 오전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구지역 가족방역협의회를 주재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10일 오전 농업인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임광원 울산군수는 10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국비확보 추진 보고회'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10일 오전 영덕중·고 강당에서 개최하는 영덕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지방세성실납세자 100명  
추첨, 5만 원 상품권 지급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경주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품토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신라컨트리클럽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지난달 1일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으며, 5만 원 상당의 경주시 상품권이 지급된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기업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은 5000만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해 고액 납세자 순으로 5개 회사를 선정했다.

한편 선정된 회사에게는 시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세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쥘진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기업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1300개 회사에게는 지방

세 납기안내, 지방세 절세 방법 등을 안내하는 탁상달력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으로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고 있으며,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 영덕군 '치매' 적절한 치료·관리 지원한다

영덕군-치매정밀검진사업  
거점병원 협약체결

영덕군은 치매노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 관리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의료원, 포항 성모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과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상호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하나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해마다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더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치매정밀검사를 대상자(전국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자)들에게 무료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하며, 치매조기검진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도구를 활용해 1차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1차 검사결과 연령, 학력, 성별을 기준으로 정상노인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의 -1.5표준편차 미만인 인지저하자 및 의심자에 대해 4개 병원에 의뢰해 전문의 진찰, 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의 2차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영덕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선별검사 모습

치매노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 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

## 포항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포항시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와 2017년도 신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문명호 시의회의장, 보조사업자, 일반시민,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최종 평가를 거쳐 시상식이 거행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3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앞서 주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창조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했다.

마을 꽃밭, 워터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 44개, 음악회, 상가활성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8개,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개발 사업 8개 등 총 80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5억53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됐다.

이 중 1차 심사를 거쳐 △구룡포 아라장터(버룩시장) △커뮤니티문화공간 커뮤니티공간 조성 △프로스코 이주마을 벽화거리 △친환경 주말생태체험학습장 △민관군 협업 꽃밭단지 조성 △일일농부 되기 △희망대로 '게릴라가 드림'사업 △우각 우리마을 이야기 △마을공동체 미니 방역단 △흙뚍머리신 뽕래방 등 10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날 실시된 사례발표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 평가와 주민참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행정지원 및 의지 등 수행능력과 마을발전 가능성, 사업주체의 역량 등 발전가능성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단체를 결정해 시상했다.

또한, 사업 지원과 우수사례 전파, 행정지도를 펼친 구룡포읍, 기북면, 용흥동, 죽도동, 중앙동 등 5개 읍면동에 대한 시상과 2017년 신규 신청에 대한 신규조사사업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낙후된 도심지역 재생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도 2~3월 중으로 신규사업 신청을 받아 3월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작년 단체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던 것을 대폭 올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윤환 기자

## 칠곡군,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건립 본격 추진

2018년 말 개관목표



칠곡군은 석적읍 중지리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 2018년말 개관을 목표로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을 본격적으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은 칠곡군 가산면 출신으로 근대 국극 및 창극의 선구자이며 1968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보유자로 지정된 향사 박귀희 명창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념관은 3만5978㎡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750㎡규모로 공연장 240석, 연습실 겸 교육장 2개소, 전시실 1개소를 설치한다.

칠곡군은 그간 군관리계획결정 고시와 보상협의, 설계공모,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 착공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양식인 한식구조와 현대건축이 조화된 상징성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관을 주변의 관광 자원과 연계, 자연과 생태, 호국과 평화,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체험형 복합 관광단지로 특화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 경산 친환경 봄 미나리 맛보러 오세요



용성 육동·남천 맥반석  
청정 봄 미나리 본격 출하

경산에서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한 '용성 육동·남천 맥반석미나리'가 겨울을 이겨내고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도시민, 관광객에게 친환경 청정 미나리를 선보이고자 농가들의 일손이 분주하다.

용성면 육동 미나리가 지난달 7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본격 출하되고 있으며, 남천 맥반석 미나리는 10일 첫 출하 시작으로 4월 중

순까지 향긋한 청정 봄 미나리를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2005년 육동 미나리를 기점으로 경산지역에 미나리 재배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8ha로 재배면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재배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도내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아 지역의 명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친환경 청정 봄 미나리는 kg당 9000원으로 맛과 향, 품질이 뛰어나 농한기 재배농가들에게 고소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경운 기자

## 청도박물관, 정유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 개최

청도박물관은 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세시풍속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다채로운 전통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유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예로부터 '정월이 좋아야만 일 년 열두 달이 좋다'는 믿음이 있어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가 정월에 행해졌다. 한 해 동안의 무병, 풍년을 기원하고 액을 막는 다양한 행사를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며 정월 대보름을 즐겨왔던 것이다.

이러한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된 이번 행사는 2016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주줄 당기기'의 도주줄이 제작, 전시돼 눈길을 끌며, 청도 달집을 축소에 만든 아기달집도 만들어져 소원지를 걸어둘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공예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알록달록 예쁜 민화복주머니 만들기, 아그작! 부럼깨기, 고수리할부지와 함께하는 새끼줄 꼬기 등 정월대보름의 의미와 재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마당 민속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승용 청도군수는 "청도군을 찾는 모든 이들과 군민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체험을 통해 나쁜 액을 없애고 복을 부르는 행복 가득,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채종갑 기자

수도권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동해바다 그곳은 포항입니다.

서울-포항 KTX 운행

# 구미시,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박차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리는 '자연보호구미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10일 오전 보건소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튼튼혈관 지키기 실버 건강교실'에 참석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10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사)경북여성기업협의회 제4대 영천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17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10일 오후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 '삼국유사 홍보홈페이지 운영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박용환 고령군수는 10일 오전에는 운수면 오후에는 우곡면을 순회 방문한다.

## 고령군, 다산참외 첫 출하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고령 다산 참외가 8일 첫 출하됐다. 고령군 다산면 좌악리 김집순(53) 씨는 참외 50박스(5kg)를 수확해 대전중앙청과에 출하했으며, 판매가격은 박스(5kg)당 4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확한 참외는 지난해 11월 20일 '참미소फल' 품종을 정식한 것이다. 잣은 강우와 한파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출하된 것으로 그 의미와 기쁨이 크다. 2017년 다산면에서는 131농가가 103ha면적에 참외를 재배하고 있다. 벌수정을 통한 친환경재배로 연간 70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군에서는 농업인 고령화와 FTA 등으로 농업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보온덮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자동화시설 등 노동력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벌수정 지원사업 등 품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손정석 기자**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 사업추진 신흥시장 개척·바이어 발굴 등 9개 사업 7억여 원 지원

구미시는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 및 사드 대응 조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맞춤형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는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 9개 단위사업에 7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미에 분사나 공장 등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전략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에 집중한다. 기업이 선호하는 중남부 유럽을 시작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별도로 개별 기업체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 할 경우 부

스 임차료, 통역비 지원 등 해외 무역박람회 참가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수출기업 글로벌 전문지원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협력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 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해외 시장 조사 및 지사화 사업을 통해 최신 수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독일에 개설한 통상협력사무소 운영을 강화해 유럽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무소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올 10월에 개최되는 독일 뮌헨 전기자동차 박람회 구미 공동관을 운영·지원을 통해 참가하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유럽시장 진출에 밑거름을 트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 중견기업 육성에 앞장선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품질인증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에 인증 취득비를 지원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임으로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



국어 전자카달로그 제작을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를 실시해 중소기업의 무역 대응력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에 전략적 마케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의 소상공 시장인 중국 이우시 국제

상무성 내 '경북상품전시관'을 운영해 중국 바이어 발굴 및 유통망 확보를 비롯한 한-중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각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이은진 기자**

## 의성眞, 2017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공동브랜드 대상 수상

의성군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의성眞'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최고 브랜드 시상인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에서 2016년 '의성마늘' 대상 수상에 이어 2017년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브랜드 대전에서 '의성眞'은 산업군별 대한민국 소비자인식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리더십, 소비자중심 브랜드 경영체계, 소비자 불만 관리프로세스, 소비자 브랜드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30명과 학계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조사항목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영광스러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의성군은 자두 생산량 전국 1위, 한지형 마늘 생산량 전국 1위, 사과와 고추는 전국 4위, 복숭아 15위, 쌀 22위로 국내 농산물의 주요 주산지인 천혜의 조건에서 생산되는 의성군 농산물의 효과적인 유통을 위해 '의성眞'이 탄생했다.

'의'의 'o'은 의성 고을에 따스한 기운을 머금고 내리쬐는 태양을, '眞'은 의성의 비옥한 토양을, '성'은 태백산맥과 낙동강 사이에 위치한 의성의 지리적 특성과 청정한 자연 속에서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을 품고 농업인들의 땀을 비료 삼아 자라나는 농산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참다운·진정할', '거짓이 없는', '신뢰성이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나타낸다.

의성군은 우수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대도시 유통시장에 '의성眞' 사과를 첫 출하하고 자두, 복숭아, 가지를 출하하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 가고 있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박재성 기자**

## 영천상업고, 취업명문 마이스터고로 날개단다

### 2018년 개교 목표 첫 삽



영천상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사업이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지난해 12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식품품질관리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문을 열기 위한 본격

적인 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결정, 토지보상, 건축설계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실습실 등 신축건물이 들어설 학교부지에는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새롭게 짓게 되는 건물은 실험 및 전문교과 수행을 위한 실험실습동과 기숙사 등으로, 식품·바이오 분야 기술명장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이후 100%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 직무분석 교수진, 교사 등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교육과정 연구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영천상업고의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2020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총 3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학생들은 수업료 면제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 받으며 식품품질관리

분야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진짜 명품교육이 무엇인지 마이스터고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도 명문 마이스터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에서도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진행 및 사업비 투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아갈 계획이다. 영천상업고는 2018년 3월 입학하는 신입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게 된다. 최종 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9학급 180명으로 식품 및 바이오 2개 코스로 운영되며, 산업현장 실무교육으로 식품품질관리 분야의 마이스터들이 배출된다. **김일만 기자**

## 상주시, 시민과 시장 대화의 시간 가져

### 시내 순환버스 도입 관련



상주시는 9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운수업계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시내 순환버스 도입과 관련 상주시민과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는 용역업체의 순환버스 도입 설명, 시민과 시장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으며 시민과의 만남은 지난달 18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시 순환버스 도입을 바라는 시민 81.2%의 찬성여론과 택시업계의 반대가 상충하고 재정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건의로 이뤄졌다. 용역업체에서 제안한 순환버스 도입 내용은 버스 터미널에서 명실상감한우 구간의 동서노선과 경북대 캠퍼스에서 만산사거리 구

간의 남북노선 2개 노선이며 남북노선을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추후 동서노선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으며 배차간격은 10분정도이고 남북노선만 도입시 차량구입비 13억 원을 포함한 운송손익 14억 원 등 27억 원, 동서 남북 2개 노선 모두 도입시에는 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했다. 이정백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매년 500여 명의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는 매년 1500여 대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의 병목현상과 교통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호소하면서 시민들이 개진한 찬·반의견은 순환버스 도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시민들에게는 시내 이동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농민의 땀이 결실로 맺어지는 희망농촌 건설!!

<b>구미 친환경쌀</b> 내국산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구미 친환경 쌀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연오신 밤을드림</b> 100% 국내산 밤을 생산하는 연오신 밤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금오산복숭아</b>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하는 금오산 복숭아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금오산 새싹이바람</b> 100% 국내산 새싹을 생산하는 금오산 새싹이바람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구미 표고버섯</b> 100% 국내산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구미 표고버섯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금오산 표고버섯</b> 100% 국내산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금오산 표고버섯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무궁화떡</b> 100% 국내산 무궁화떡을 생산하는 무궁화떡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산촌 유년농도풍광</b> 100% 국내산 유년농도풍광을 생산하는 산촌 유년농도풍광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무궁화떡</b> 100% 국내산 무궁화떡을 생산하는 무궁화떡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b>금오산 양청·그루장</b> 100% 국내산 양청·그루장을 생산하는 금오산 양청·그루장 생산자 협회입니다. <b>☎ 054-831-4621</b>

구미시 <http://gumifarm.com>

# 영주 '부석태' 아프가니스탄에 세계화 씨앗 뿌리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10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발전과 17만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안동부 신목 제사'를 지낸다



장옥현 영주시장은 10일 문수면 외 1개소에서 개최되는 '2017년 읍면동 민생담방'에 참석한다.



박노옥 봉화군수는 10일 '국립 문화재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다.

## 2017년 문경시 여성회관 상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문경시 여성회관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선착순으로 '2017년 상반기 교육수강생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남녀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과목을 신설하는 등 총 31개 과목에 89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주민이라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관심 있는 분은 문경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또는 문경시 여성회관(550-8962-8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 예천군,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호응

예천군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관내 오지 마을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예천군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을 위해 군 지적담당 공무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직원과 함께 합동 처리반을 편성해 지난달 24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1개 면지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지적민원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9일은 은풍면 오류2리 경로당에서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은 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 토지분할 등 토지이용 업무와 조상땅찾기,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행정 전반에 대해 현지에서 상담하고 처리해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배려한 업무처리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김용구 기자

## 영주시-아프가니스탄 농업부간 MOU 체결

영주시는 품종등록하고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석태'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9일 시청 직소민원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진기훈대사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농업부(장관 : Assadullah Zamir)와 영주시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통해 서면으로 이뤄지며 시는 지속적인 해외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국제농연구소 유치와 부석태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콩 관련 시설 연구나 기관방문으로 우량 품종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콩 식량문화와 전통 한국 콩 식품문화의 융합을 위해 콩 요리 및 가공기술 보급과 콩 신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콩과 관련한 식품 문화 저변확대와 이용 증대로 아프가니스탄의 영양결핍 해소를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영주 부석태는 2015년 5월 15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등록을 완료해 20년간 영주시가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다. 시는 '부석태' 세계화와 저개발국가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해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국제 구호단체인 NEI(Nutrition & Education International) KOREA를 통해 부석태 종자

50kg를 전달(2015. 11. 10)해 현지에서 시험 재배 중에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영주시-한국콩연구회-NEI KOREA가 업무협약을 맺어 아시아 지역 콩과작물 협의회(CLAN, Cooperative Legume Asia Networks) 회원 20여 명이 영주시를 방문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여성공무원들을 초청해 콩의 효능과 다양한 영양학적 가치 및 콩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연수를 추진했다. 장옥현 영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량난과 기아에 빠져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부석태가 그냥 콩이 아닌 '생명의 콩, 사랑의 콩, 희망의 콩'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오른쪽이 진기훈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 청송군, 전국학생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14일-20일까지 7일간

청송군은 14일-20일까지 7일간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과 한국중고등학교배드민턴연맹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도배드민턴협회, 청송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 청송군, 청송군체육회가 후원하는 2017 한국초등학교·중고등학교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배드민턴선수권대회(이하 '배드민턴대회')가 청송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며 단체전(초중고)과 개인전(중고)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청송초등학교 및 청송여중고 배드민턴부도 학교의 명예뿐만 아니라 청송을 대표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지난 2016 학교대항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해 3위를 입상한 청송초등학교 배드민턴부와 전국 최강 실력을 갖춘 청송여고 배드민턴부는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서로 단합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청송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면서 도지사기 탁구대회, 국무총리기 전국시도대항 검도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남녀학생별탁구대회를 개최했고 이번 대회까지 유치·개최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1500여 명의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이 청송군에서 마음 편히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The New 비전 선포

제2의 도약 위한 준비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9일 오후 안동체육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The New 비전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비전 및 비전 선포식은 설립 11년차를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한 공단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The New 비전 및 비전을 선정하고 이를 선포함으로써 행복안동 건설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준비했다. 선포식에서 공단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경영과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객과 지역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공단은 지난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설문조사 등 자발적인 참여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현실적이며 측정 가능한 새로운 비전과 비전을 선정하고 새롭게 선정된 비전과 비전은 공단 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는 한편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안동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시민들에 무한 신뢰를 제공하겠다는 직원들의 의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부터 대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직원 성과연봉제 운영, 내부평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운영의 비효율성을 원천 제거하고, 대외적으로는 무한 감동·무한 친절 서비스의 실천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단 만들기에 나섰다. 표갑두 이사장은 "이번 선포식 행사는 과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로 공단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사랑을 받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좀 더 신뢰받기 위해 전 직원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 영주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대폭 확대

수영장·복싱전용체육관 준공 선비촌-무섬마을 자전거 무인 시스템 증설 등 체육시설 조성

영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9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복지 일환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실

내수영장·복싱전용체육관 개관과 세대·종목별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시는 우선 영주실내수영장(사업비 150억원)과 대한복싱전용훈련장(사업비 100억원)을 올해 말 준공해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대수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민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영주시전용탁구장 건립, 영주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화장실 증축, 시민건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시민운동장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을 통해 활용도와 편의성 증진과 각종 대회 개최에 적합한 시설기준·환경을 조성한다. 이같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세대별 시민 수요에 맞는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조성으로 건강도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풍기읍 광복공원 내, 안정면 오계리, 순흥면 읍내리, 단산면 옥대리, 부석면 인곡리, 상망동의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상시 이용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영주시주민참여예산으로 이뤄지는 장수면 갈산리 마을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노년층의 여가활동 지속적 지원과 고령화시대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개장한 자전거 공공대여소는 주말 하루 평균 대여수가 200대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자전거 공원과 무섬마을 외에도 선비촌, 서천둔지, 한정교 등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아이(love) 영주사과

36.5 수백어람

영주사과는 unicef 유니세프 와 함께 "해외오지마을 우물파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사과는 unicef 유니세프 와 함께 "해외오지마을 우물파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

#### 대구광역시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10

‘예비역 돌풍 기대하라’  
맹동섭·박현빈·김민수  
새 시즌 복귀



2017년에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 예비역 돌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KPGA에 따르면 올 시즌 맹동섭(30·서산수호텔엔리조트), 박현빈(30·불빅), 김민수(27·불빅)가 군 복무를 마치고 투어 무대에 복귀 신고를 한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함께한 맹동섭과 박현빈은 나란히 KPGA 코리안투어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2009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맹동섭은 그 해 ‘조니워커 블루라벨 오픈’에서 황인준(43·후쿠즈미, 휴센), 김대섭(36·NH투자증권), 배상문(31) 등 쟁쟁한 선배들을 연장 접전 끝에 제치고 생애 첫 승을 거뒀다.

또 군인 신분으로 출전한 2015년 ‘KPGA 쉐린지투어 3회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KPGA 쉐린지투어 사상 처음으로 군인 신분 우승자가 됐다.

현재 하와이에서 전지훈련 중인 그는 “군 전역 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며 “출전하는 매 대회 최선을 다해 8년 만의 KPGA 코리안투어 우승을 이뤄내고 싶다”고 전했다.

2013년 ‘제1회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에서 1타 차 준우승을 차지했던 박현빈 또한 예비역 정신을 발휘해 올해는 반드시 생애 첫 우승의 영광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다.

맹동섭과 데뷔 동기인 박현빈은 “군 생활 기간 동안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 시즌 필드 위에서 예비역의 힘을 아낌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선수들 사이에 ‘전역 후 투어에 복귀하면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쯤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다”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2년 KPGA 코리안투어에 입성한 김민수는 체육 특기병이 아닌 일반 병사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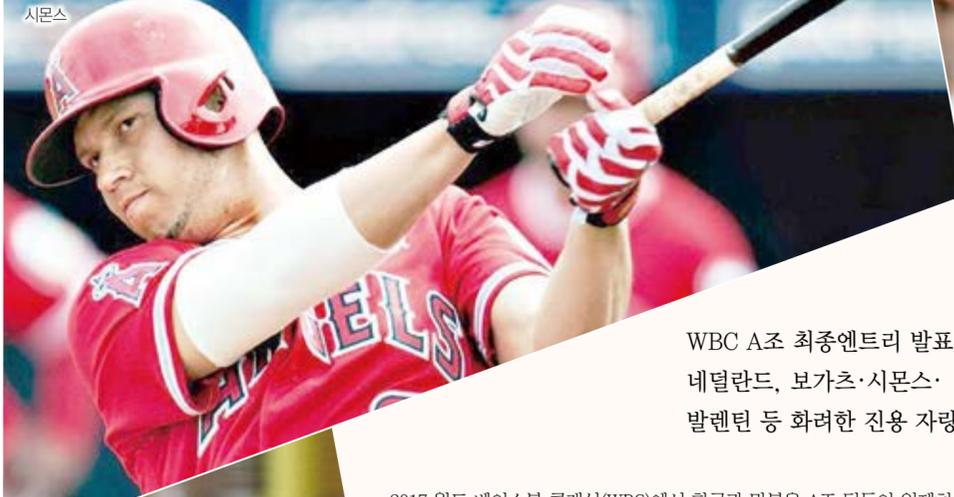
데뷔 첫 해 드라이브 거리 부문에서 평균 302.333야드로 5위에 자리했던 그는 KPGA 코리안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로 이름을 날렸다.

전역 후 필드로 돌아갈 모습을 상상했다는 김민수는 “예비역 선수들의 활약이 담긴 기사들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했다”며 “강한 체력을 만들어 시즌 마지막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밖에 2012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강윤석(31)과 ‘예비역 루키’ 박민준(27)도 군복을 벗고 팬들 앞에 선다.

KPGA 코리안투어에서 예비역 돌풍은 낯설지 않다. 2012년 8월 군복무 종료 후 투어에 돌아온 김대섭(36·NH투자증권)은 그 해 9월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과 10월 ‘코오롱 제55회 한국오픈’에서 우승하며 2년간의 공백을 무색케 했다. 뉴스

# ‘한국 경쟁팀’ A조 네덜란드 화려한 라인업



시몬스



보가츠

WBC A조 최종엔트리 발표  
네덜란드, 보가츠·시몬스·  
발렌틴 등 화려한 진용 자랑



발렌틴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국과 맞붙을 A조 팀들이 일제히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WBC 사무국은 9일(한국시간) 제4회 WBC에 출전하는 16개국 최종 엔트리와 투수 예비 엔트리를 공개했다.

1라운드에서 한국과 승부를 벌일 A조의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만의 엔트리가 발표됐다.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팀은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현재 메이저리그 구단에 소속된 선수가 10명(투수 예비엔트리 포함)이나 된다.

특히 젠더 보가츠(보스턴), 조나단 스크(볼티모어), 안드렐론 시몬스(LA 에인절스), 디디 그레고리우스(뉴욕 양키스), 주리슨 프로파(텍사스) 등이 포함된 내야진은 현역 메이저리그 주전 선수들로 구성이 가능하다.

현역 메이저리거는 아니지만 메이저리그 52승 경력의 자이르 저젠스, 26경기 출전의 투수 사이론 마르티스와 일본리그에서 활약 중인 블라디미르 발렌틴(야쿠르트)도 포함됐다.

발렌틴은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6시즌을 뛰면서 통산 0.277의 타율에 185홈런 459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2013년에는 무려 60개의 홈런으로 일본 프로야구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쓰기도 했다.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이름인 릭 밴덴헐크(소프트뱅크)도 최종 명단에 있다. 2013년부터 2시즌간 삼성에서 뛰던 밴덴헐크는 일본 무대에서도 톱클래스의 선발 투수로 활약 중이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투수 중 하나인 켈리 젠슨도 투수 예비 엔트리에 포함됐다. 1라운드 한국전에 등판하지는 않겠지만, 네덜란드가 2라운드 이상 진출할 경우 엔트리 교체로 통해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다. 메이저리그 구단에 소속된 선수로만 따지면 22명으로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많다. 다만 마이너리그 유망주들이 대부분이라 ‘이름값’은 네덜란드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2012년 뉴욕 메츠에서 32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통산 81홈런의 아이크 데이비스(LA 다저스), 2005년부터 꾸준히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투수 스킷 펠드먼(신시내티) 정도가 주목할 이름이다.

37세의 베테랑 볼펜투수인 크레이 브레슬로우(텍사스)도 통산 539경기를 소화했다. 이번 대표팀에서도 좌완 볼펜투수의 보직을 담당할 전망이다.

현역 빅리거는 아니지만 제이슨 마퀴스는 경력이 가장 화려한 선수다. 2015년 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마퀴스는 빅리그 통산 377경기를 뛰며 124승 118패 평균자책점 4.61을 기록했다.

대만은 천웨이(마이애미), 양다이하강(요미우리) 등이 제외됐고, 자국리그에서 활약 중인 왕보롱, 린훙위 등도 빠지면서 완벽한 전력을 꾸리지 못했다. 일본에서 뛰는 천관위(지바 롯데), 귀진린(세이부), 송자하오(라쿠텐)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메이저리거인 왕첸밍은 투수 예비엔트리에 포함됐지만 1라운드에서는 등판하지 않는다. 뉴스

## G-1년 평창, 이렇게 준비한다… 메뉴는 잘 되고 있나

### 경기장 등 관련시설 준비 ‘착착’ 발목 잡는 사후활용 방안 ‘시급’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그 자체로도 이슈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각종 메뉴(장소) 또한 큰 관심사다.

선수들이 그동안 뒹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취재진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 더 나아가 관중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여러 공간이 곧 동계올림픽의 메뉴다.

특히 대회 종료 후 만족할만한 올림픽 유산으로 남지 않게 되면 속된 말로 ‘빛잔치’의 주범이 될 수도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 ■설상·빙상경기장과 관련시설 준비 ‘순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총 15개 종목의 경기장이 열리며 이를 위해 총 12개의 경기장이 필요하다.

각각 설상경기장 7개, 빙상경기장 5개로 지역별로 평창 6개, 강릉 5개, 정선 1개다. 이들 경기장 건설비용으로 총 8723억원이 들어갔다.

이중 6개의 경기장은 신설하고 나머지 6개는 보완·확충해 사용한다. 지난 소치올림픽에서는 개·폐회식장인 피스톤 올림픽 스타디움을 비롯해 11개의 경기장을 새로 지었다.

신설 경기장 중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펼쳐

지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지난해 12월 14일 신설 경기장 중 최초로 완공됐다.

이곳은 이미 테스트이벤트인 쇼트트랙월드컵을 포함해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등을 무난히 치러내며 합격점을 받았다.

나머지 5개 경기장도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정선 알파인 경기장(85.6%),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94.2%),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99.1%), 강릉 하키센터(99.8%), 관동 하키센터(99.8%) 등 평균 공정률 96.4%로 순조롭게 완공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9일부터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가 진행돼 세계선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오른다.

국내 최초의 동계슬라이딩 경기장으로 봅슬레이와 스킨레본, 루지경기가 열릴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역시 관심거리다.

실내 훈련용을 포함해 총 2018m의 트랙에 16개의 커브가 들어가 속도감과 역동성을 두루 갖춘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이 30분 내에 위치하도록 조정했다.

이 같은 경기장 준공의 배경에는 수많은 과정과 우려곡절이 있었다.

작공 후 설계변경과 예산문제 등의 걸림돌에 경기장 준공시기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사 관계자들의 작업 끝에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

러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구닐라 린드버그 IOC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정위원장은 평창의 든든한 아군이였다.

린드버그 위원장은 2011년 조사평가위원장 시절 평창 첫 방문을 시작으로 조정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7차례에 걸친 IOC 조정위원회를 통해 무한 신뢰를 보내며 동계올림픽 준비에 힘을 보태왔다.

기타 부대시설 건설도 순항 중이다.

2018년 2월9일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될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이 열릴 올림픽플라자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에 휘말리며 입었던 상처를 딛고 9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NBC 등 세계 80여 개국 방송사가 입주할 국제방송센터(IBC)도 6월 준공을 앞두고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앞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IBC는 연면적 5만1000㎡ 규모로 공정률은 지난 3일을 기준 71.7%다. 각 경기장에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줄 경기장 진입도로에는 총 5399억원이 투입된다. 평균 공정률은 60% 가량으로 12월 준공 예정이다.

#### ■개최와 함께 오는 걱정…사후활용 대책

강원도는 현재 올림픽플라자를 제외한 12개 경기장 중 10곳에 대해 관리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등 사후 활용방안 준비를 마쳤다.

애초 올림픽 이후 철거를 목적으로 설계됐던 IBC도 조직위가 강원도에 사후활용 방안

모색을 제안하는 등 존치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문제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정선 알파인경기장, 올림픽플라자 등 세 곳이다.

특히나 최순실 국정농단 동계올림픽 관련 부분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는 ‘뜨거운 감자’다.

처음부터 철거할 계획이었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지난해 4월 뒤늦게 존치하는 쪽으로 결정돼 강원도에 고심거리를 안겼다.

도는 부라부라 정무시설로 관리를 추진하는 등 사후활용 방안과 관리주체를 찾아 나섰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플라자는 건설 초기부터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6시간 동안의 개폐회식을 위해 몇 백억을 들여 건물을 짓는다’는 논란에 이어 사각형이었던 형태가 연출을 위해 오각형으로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 잡음이 일었던 곳이다.

이곳의 사후관리는 도가 맡게 되는데 올림픽 기념관으로 활용한다는 포괄적인 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은 상태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또한 복합레저·관광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실치 않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특성상 이 같은 메뉴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55조원을 들인 지난 소치올림픽에 직격탄을 날린 ‘올림픽 저주’가 강원도를 겨냥할 확률이 크다. 뉴스



# 오늘... 생각한다

## 울릉도 일주도로 마침내 뚫린다

울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릉일주도로가 착공 54년 만에 완전 개통될 전망이다. 미 개설 구간으로 남아 있던 4.75km중 마지막 구간인 관선 2터널이 개통된다는 것이다. 최대의 난공사 구간이었는데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그것도 2020년 완공계획이었지만 3년이나 공기를 앞당기게 됐다하니 울릉도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번에 관통되는 관선 2터널은 울릉일주도로의 3개의 터널 중 마지막 남은 터널(L=77m)로서 지난 해 6월 관통된 저동터널(L=1527m), 7월에 관통된 천부터널(L=1955m)과 함께 터널이 대부분이었던 미개통 구간의 마지막 구간이다.

울릉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울릉읍에서 천부리간 1시간 30분 걸리던 통행시간이 10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완성됨으로써 울릉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 낙석, 산사태, 너울성 파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주절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울릉도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된다. 울릉군 주민들에게 일주도로 공사는 한이 서린 숙원사업이다. 그만큼 완공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누리게 될 혜택이 크다. 무려 60년을 넘게 끌어 온 도로사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울릉 일주도로 개공공사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 날짜에 개통돼 울릉도 주민의 응어리진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기 바란다.

## ‘정규직 꿈’ 사고판 GM노조의 추잡함

노조의 채용비리 타락이 극에 달했다. 검찰이 8개월에 걸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를 수사해 발표한 결과는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추잡하다.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매년 수십 명씩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노조가 요구한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세 명 중 한 명은 뒷돈 주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전직 노조위원장의 집 화장실에선 수억 원의 돈다발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의 노조 간부들은 발탁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회사 상무와 부사장 등 임원들에게 명단을 전달했다. 상무와 부사장은 이 명단을 인력관리팀 실무자들에게 넘겨 해당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실무자들은 근무 경력과 나이, 학교 성적, 부서장 추천 점수 등 지원자의 이력 중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학교 성적을 주로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자로 만들었다. 2012~2016년에 발탁 채용으로 이 회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346명인데, 이 중 35.5%인 123명이 성적 조작을 통해 합격했다고 드러났다. 2014~2015년엔 합

격자의 70%가 이런 비리를 통해 채용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취업자들은 보통 1인당 2000만~3000만 원을 채용 브로커인 노조 간부 등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최고액은 7500만 원이었다.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2배까지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몇 년만 정규직으로 일하면 브로커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서로 먼저 채용 브로커한테 줄을 대려고 했던 것이다.

검찰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한 뒷돈 액수는 11억5200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노조의 ‘취업장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온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들이 취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챙기다 등등나 쇠괴를 잔개 불과 2년 전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53.5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여전히 32.8%나 된다.

근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노조의 정규직 장사를 없앨 수 있다.

### ■ 광역칼럼

## 대통령과 제4차 산업혁명



김수중  
연문인

1월 중순 우연찮게 벤처 1세대에 속하는 이재웅 ‘소풍’ 대표를 만나 커피 한잔을 함께했다. 지금은 카카오에 통합돼 버렸지만 그는 20여 년 전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해 한국 사회에 ‘IT벤처 충격’을 선

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대통령 출마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 슈바브 회장을 만났고 ‘제4차 산업혁명’ 책도 읽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읽는다고 측근들이 기자들에게 흘릴 정도였으니...

‘제4차 산업혁명’은 작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의 주제였고 포럼이 끝난 후 같은 이름으로 슈바브가 책을 펴냈다. 세계의 정치 경제 분야 엘리트 3000명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이 갖는 파급력은 크지만 일반 한국인에게는 가슴에 와 닿는 개념이 아닌 듯싶었다.

그런데 작년 3월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 대국에서 4 대 1로 대승을 거두면서 제4차 산업혁명 개념이 한국 사회에 퍼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세돌이 이긴 한판이 두고 말이 많지만, 프로그램의 조작 없이는 다시 인간 바둑기사가 알파고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 사람들이 동조한다.

잘 알려졌지만 클라우드 슈바브는 산업발전의 혁명적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한다. 제1차 산업혁명은 수력과 증기의 힘을 써서 생산을 기계화했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써서 대량생산체제를 만들어냈으며, 제3차 산업혁명은 전자공학과 정보기술(IT)을 사용해 생산을 자동화했다. 지금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전자공학, 생물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첨단기술의 융합이 특징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3D인쇄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소재과학, 에너지저장기술, 양자컴퓨터와 같은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술 도약에 의해 증진될 것이라고 슈바브는 점치고 있다. 이런 첨단기술의 소비적 측면만을 놓고 보면 인류 앞에 ‘멋진 신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다.

그러나, 종합적인 산업 측면에서 보면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붕괴라는 무시무시한 미래를 예상하게 만든다.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21세기를 살아갈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자 문제는 전에 없이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100만 명, 청년실업률 10%’를 안고 2017년이 시작됐다. 최근 조선 등 제조업의 불황으로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판에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일자리 문제는 가능하기 어렵게 불확실해질 것이 아닌가.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작년 국내 인공지능 및 로봇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년 국내 취업자 1630만 명의 일자리를 AI와 로봇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현재 일자리 약 67%가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황당한 얘기다. 그러나, 기술발전에는 한때 황당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일까.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문제와 연계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출마를 포기했지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귀국전 ‘제4차 산업혁명’ 책을 직접 읽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제4차 산업혁명’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책을 읽었던 안 읽었던, 제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모든 대통령 잠재 후보들의 큰 관심 영역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한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에 안 찼던지 관련 토론회에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사실상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4차산업혁명은 도전과 기회의 양면을 갖고 있다고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기회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검증 TV대담에서 IT기업 CEO 출신답게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도전을 일자리 파괴로 보고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교육개혁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문명의 속성이다. 따라서, 거시적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제4차산업혁명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선도해야 한다. 과거 모든 기술 발전이 산업에 적용될 때마다 일자리의 변화는 수반됐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일으킬 일자리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와 심도가 클 것이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 불평등과 더불어 일자리 붕괴를 몰고 온다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도전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국가 경제의 총량을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 측면이 몰고 올 개인적 사회적 불행은 소홀히 예측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겐 신경 쓸 큰 일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과학기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시대적 변화를 미리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직관은 대통령에게 더없이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이 일자리 문제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당장은 국민이 지도자를 고를 때 판단의 자료로 좋고, 그 토론 과정에서 여론이 수렴돼 선거후 누가 정책을 펴든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 각 후보 뒤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Pool)이 드러난다면 국가 인력 활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도했던 사람이다. 그는 3-4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차지해야 할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빼앗아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내용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목으로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도저히 대학생에게 겁과 비판적 전망을 주는 얘기를 할 용기가 없어 자제하기로 했단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융합해 일으킬 산업변화, 이를 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붕괴를 일찌감치 비판적으로 인지했다. 그가 말하는 일자리 붕괴는 두 방향에서 무시무시하다.

첫째,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노동은 물론 전문 분야 일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뺏아갈 것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둘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의 속성상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소수의 승자가 부를 독점하게 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 소수의 몫이 된다는 얘기가. 한 마디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대량 창출이 어려워진다.

지금 그는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회사 모양을 잡아가도록 공간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위 ‘인큐베이팅 기업’을 운영하는 한편, 공유경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IT혁명의 큰 수혜자였고 ‘다음’ 창업 전 프랑스에서 인지과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만큼 제4차 산업혁명의 선봉에 설 만도 한데, 그 대안적 사업 방향을 찾는 것은 왜일까.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 혁신의 물결을 뚫던 것일까, 아니면 비인간적 기술혁신을 우회하고 싶어서였을까. 그의 견해는 너무 비판적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청년 일자리의 혼란스러운 미래를 감지하게 된다.

작년 여름부터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다보스포럼 창시자 클라우드 슈바브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이 여러 권씩 포개져 꽂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요즘 지식인 사회의 유행어다. 정치인, 학자, 언론인, 고위 공직자들이 특하면 제4차 산업혁명을 들먹인다. 반

우리 이웃의 따뜻한 금융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대표 김성용 |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8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3회 전국 초·중·고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

### \*행운상 추첨

-노블레스 성형외과 진료권  
200만원X3매 600만원

-뉴-미셀 즐기세포 화장품  
100만원X5세트 500만원

골프용품 등  
행운상 푸짐

대회 규모 및 시상·기념품

총 **3억**여원

출인원 상품 모닝승용차

참가자 전원 30만원

상당 기념품 증정



### \*시상내역

- 스트로크
- 통합챔피언 트로피 및 아이언셋트
- 신페리오
- 남·여 우승 트로피 및 각 150만원 백화점 상품권
- 남·여 2위 트로피 및 각 드라이버 1개
- 남·여 3위 트로피 및 각 우드 1개
- 남·여 롱기스트 각 드라이버 1개
- 통합 니어리스트 퍼터

### \*기타 시상내역

- 다 버디
- 다 파
- 다 보기
- 최다스코어
- 최 고령자 상
- 웃 맵시 상
- 굿 매너 상
- 이외 푸짐한 시상

## 2월 27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 ★ 대회참가 연예인 ★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사

주관: (주)KAGA, KPGCA



위대한 제국  
신라천년의 땅  
경주 하늘에  
올려 퍼지는  
골프대축전



한현민  
개그맨



전원석  
가수



정진욱  
개그맨



신비  
가수



신비  
가수



신소민  
탤런트



이재형  
개그맨



김명석  
탤런트



이명범  
탤런트

참가규모 80팀(320명)

**2월 25일까지** 선착순 마감  
2월 27일 낮 11시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켄싱턴리조트 대연회장 저녁 6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고 및 남·여 아마추어
- ▣ 학생부 참가비: 13만원(그린피, 카트, 저녁식사 포함)
- ▣ 일반부 참가비: 1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식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01-0170-4916-31  
예금주: (주)대구광역시일보
- ▣ 접수기간: 2월 1일-2월 25일까지 선착순 마감
-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053)253-0000,  
267-5000, 010-5808-1116

